

거짓 확신

이번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네 번째 범주인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등 세상의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는 자신이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는 두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들 중 한 명은 실제로 구원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확신이 구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거짓 확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살펴본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확신이 가짜, 거짓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또는 거짓 확신을 갖게 하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구원의 요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을 수반하는지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건전한 신학, 즉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요구 사항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착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를 두 배로 복잡하게 만들므로 지금부터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주요 오류는 보편주의의 오류입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내가 이 구원의 교리를 확신한다면, 보편적 구원의 교리에서 특정 개인으로서의 운명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간단한 논증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나는 육체이므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나도 사람이라면 나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가장 널리 퍼진 칭의 교리라고 생각하는 죽음에 의한 칭의 교리라고 부르는 개념을 수반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논쟁은 16 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벌어졌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상 가장 격렬한 신학적 논쟁이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이 지배적인 이슈는 아니며, 오히려 성경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와 가장 대립하는

교리는 죽음에 의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저는 이미 전도 폭발 진단 질문에 대해 언급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를 위한 토론에서 "당신은 당신의 영적 삶이나 생각에서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곳에 왔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왜 당신을 내 천국에 들여 보내야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저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행위 의로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밤 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니?"라고 말했죠. 그러자 제 아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글쎄요, 저는 '죽었으니깐요'라고 말할 거예요." 이보다 더 간단한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들이 성경적 신학에 전념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저는 제 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이미 우리 문화에 만연한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려면 죽기만 하면 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최후의 심판을 없애고 신의 형벌이나 지옥에 대한 개념을 우리의 생각과 교회의 생각에서 지워 버렸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려면 죽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 성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집이 잡힌 죄인은 영안실과 묘지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장례식을 할 때 사람이 우리에게 미덕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이 정해진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위협이 빌리 선데이나 드와이트 무디, 빌리 그레이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트필드와 같은 톱밥 복음 전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헛된 말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청중들에게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위협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보편주의보다 더 인간에게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확신의 근거는 제가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행위 의로 불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견해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당신의 행위와 선행이 당신을 천국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격과 행위에 대한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200 명이 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역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상호 연관시켰습니다. 그 결과 90%의 답변이 행위 의로움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보이스카웃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등등의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평생 동안 성취한 어떤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신에 대한 위조 된 근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구체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 통치자일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던 일화를 기억하시죠? 이제 그는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르고, 예수님은 구원의 요건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그 남자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물으십니다. 이 대답 때문에 일부 비평가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선하심과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자신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부자가 알거나 부유한 젊은 통치자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순회 랍비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뿐이며,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신학적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멈춰 서서 "잠깐만요.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에 대한 관점은 피상적인 것이야. 왜 저를 선하다고 하십니까? 시편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편지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시 말합니다."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글썄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선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이며,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행동 일치와 둘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내적 동기 또는 욕망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제 저는 외부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존 칼빈이 시민적 미덕이라고 불렀던 선한 일을 하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제한 속도에 맞춰 차를 운전하는 등 수평적 차원에서 온갖 훌륭한 일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충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깨달은 이기심'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불신자인 한 남자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길거리에서 있었는데, 불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급히 들어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이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건물에 아직 한 아이가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불길도 무시하고 지옥도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고, 잠시 후 그는 품에 보따리를 안고 무사히 살아서 나왔고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생명 보험을 꺼내서 아이를 죽게 놔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환호를 계속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남자가 화염 속에서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가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지역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또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시민적 정의이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갖는 자연스러운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실 때 "이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걸으려는 율법을 준수한다면 내 죄, 아니 변명하자면 내 덕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미덕조차도 화려한 악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젊은 통치자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표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적을 보고 하나님이 곡선으로 채점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고 그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을 항상 찾을 수 있고,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남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행한 것이요, 평생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이 율법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할 때 산상수훈에 참석하지 않으셨군요. 그 강의를 놓쳤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잘못을 가르치기 위해 아름다운 교육적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아, 다 기억하고 계셨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하나도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그래,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도 아니었고, 모든 개인 재산을 처분하라는 보편적인 명령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상대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고, 이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그의 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돈은 그의 신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좋아, 1 번을 확인해 보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라고 말씀하시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성적이던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에 잠긴 채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모든 만남의 핵심은 바로 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성경은 모든 페이지에서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며 그 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16 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잘못된 구원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를 신격화주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신권주의는 구원이 신권을 통해, 성례전을 통해, 또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참회 성사를 받았어요.", "성만찬을 받았어요.", "마지막 권세를 받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례들을 받았고 이 성례들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전이 나를 구원해 주므로 성례전을 경험한 데서 자신감이나 확신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즉 구약의 성례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성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지만 어떤 성례도 아무도 구원한 적이 없으며, 성례에 신뢰를 두면 구원을 받지 않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회에 가입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가입하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몸 안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속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의 멤버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회원이라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감리교인이예요." 아니면 구원받았나요? "물론, 저는 성공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물론이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누구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불법적인 확신의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소위 복음주의 세계에서는 죄인의 기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기, 제단 기도로 나아가기, 예수님을 위해 결단하기 등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부르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르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나 방법이며, 괜찮지만 위험은 기도를하고, 손을 들고, 걷고,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외적인 고백이 속일 수 있으며 실제로 구원에 필요한 단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는 방법과 이러한 가짜 구원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